


살고싶은도시 함께만드는인천		보 도 자 료		수도권매립지 종료
배포일자		2021년 11월 8일(월) 총 3매		 환경복지센터 인천
담당 부서	소상공인정책과	담당자	• 인천e음운영담당 • 담당자	변영환 ☎440-4211 허정규 ☎440-4212
사진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 도 시 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### 인천시, 1석 3조 “e음택시” 시동 걸었다.

- 지역화폐 플랫폼 활용한 택시호출서비스, 11월 8일 서비스 개시 -
- 인천시민 e음택시 이용 서비스 편의제공, 캐시백 10% 지원 -
- 택시업계 앱결제 수수료 1.2% ~ 1.4%, 콜비용, 멤버십비용 없어 -

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을 위해 사용자 중심의 공공형 택시플랫폼 “e음택시” 사업이 출범한다.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승객감소, 근로자 이직율 증가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지역 택시업계의 부담경감 및 시민들의 편리한 택시호출 통합서비스 도입 필요성 증대에 따라 “e음택시” 서비스를 11월 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.

“e음택시”란 지역화폐 플랫폼(인천e음) 기반의 택시 호출서비스를 말하며, 대기업 플랫폼의 독점으로 택시업계는 물론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지자 대안이 될 수 있는 공공형 플랫폼 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대두되어 인천e음 플랫폼을 기반으로 도입한 서비스다.

이 서비스는 인천e음 이용자라면 별도의 앱을 설치하거나 회원 가입할 필요 없이 인천e음 메인화면에 있는 ‘e음택시’ 버튼을 클릭하면

손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, 이용 시 캐시백 10%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.

인천시는 “e음택시”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. 1단계로 현 운영대행사를 통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. 기간은 2021년 11월부터 다음 운영대행사 변경 시까지이다. 연말 진행할 운영대행사 공모 선정 시 인천e음 부가서비스에 택시호출서비스를 포함해 2단계 본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.

“e음택시”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과 동일한 방식으로 카카오모빌리티 등 대기업의 택시업계 독과점에 따라 도입된 공공형 택시플랫폼이다.

카카오T의 경우, 결제수수료 뿐만 아니라 가맹택시는 월매출의 3.3%, 비가맹택시는 월 39천원의 멤버십 이용료와 승객에게 콜비용까지 부담시키는데 반해, “e음택시”는 결제수수료는 합리적으로 낮추고 (1.2%~1.4%) 콜비용과 멤버십 이용료 등의 기타 비용이 없어서 택시사업자와 시민들의 부담이 경감되며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.

박남춘 시장은 “e음택시는 민간택시 호출앱 대비 수수료는 내리고 캐시백을 통한 사용자 혜택은 올려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며, e음택시와 같은 시민 친화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인천e음이 국가대표 지역화폐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전했다.

- <붙임> 1. e음택시 BI  
2. e음택시 호출 흐름도  
<별첨> 1. e음택시 사진

## < e음택시 BI >



## < e음택시 호출 흐름도 >



□ 인천e음 고객은 앱 접속후 택시호출서비스 약관만 동의하면 바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.

- 고객서비스 : 인천e음 앱 내에서 이용
- 기사님서비스 : 별도의 기사앱을 다운로드하여 이용